

# KOPEC 라운드테이블

## Agenda for the G20 Meeting in Korea

### 주요 논의 결과

2009년 11월 5일 (목) 12:00 ~ 17:40  
서울, 웨스틴조선호텔 2층 튜올리움

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(KOPEC)

### I. 개요

1. 일 시: 2009년 11월 5일 (목) 12:00 ~ 17:40
2. 장 소: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2층 튜올리움
3. 주 최: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(KOPEC)
4. 제 목: 한국 G20 정상회의 아젠다를 위한 서울 비공개 라운드테이블  
(Seoul Roundtable on the Agenda for the G20 Meeting in Korea)
5. 프로그램
  - 사회: 양수길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(KOPEC) 회장

#### [개회 및 기조연설]

- 개회사
- 양수길 KOPEC 회장
  - 유수프 와난디(Jusuf Wanandi)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포스트 발행인,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(PECC) 공동의장
  - 피터 드리즈데일(Peter Drysdale) 국립호주대학교 명예교수
- 기조연설
- “한국 G20의 과제와 전략적인 고찰(Challenges for the Korea G20 and Strategic Considerations)”
- 사공일 한국 G20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장, 무역협회 회장
- 토 론
-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회장
  - 김기환 서울금융포럼 회장
  - 박영철 고려대학교 교수
  - 고든 드 브라우어(Gordon de Brouwer) 호주 수상 경제자문위원회 부장관

#### [세션 1] 거시 경제와 금융 이슈에 관한 G20 아젠다 (The G20 Agenda on Macroeconomic and Financial Issue)

- 발 제
- 피터 드리즈데일(Peter Drysdale) 국립호주대학교 명예교수
- 토 론
- 박영철 고려대학교 교수
  - 김인철 성균관대학교 교수

- 박재하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

**[세션 2] 구조 개혁 이슈에 관한 G20 아젠다  
(The G20 Agenda on the Structural Reform Issues)**

- 발 제 · 피터 드리즈데일(Peter Drysdale) 국립호주대학교 명예교수
- 토 론 · 피터 페트리(Peter Petri) 미국 브랜디스대학교 교수  
· 슈지로 우라타(Shujiro Urata) 일본 와세다대학교 교수  
· 정태용 아시아개발은행(ADB) 선임기후변화담당관  
· 리차드 답스(Richard Dobbs) 맥킨지 앤 컴퍼니 디렉터

**[세션 3] 한국 G20과 그 이후, 동아시아의 역할  
(The Korea G20 and Beyond, and the Role of East Asia)**

- 발 제 · 유수프 와난디(Jusuf Wanandi) PECC 공동의장
- 토 론 · 고든 드 브라우어(Gordon de Brouwer) 호주 수상 경제자문  
위원회 부장관  
· 박태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 
·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
·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

**[결 론] 한국과 동아시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  
(Way Forward for Korea, East Asia and the Project)**

**II. 주요 논의 내용**

---

**개회사**

---

□ 양수길 KOPEC 회장

- o 라운드테이블의 배경 및 목적
- 지난 8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010년 한국의 G20 정상회의 유치와 관련한 의제 개발을 위해 브레인스토밍 모임을 가진 바 있음.

- 한국과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금융 위기에 대처하고, 또한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새롭고 동등한 파트너로서 세계 경제 거버넌스를 위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시각이 대두되었음.
- 2010년에 개최될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의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동아시아 국가들이 힘을 모아 함께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됨.
-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 KOPEC이 인도네시아 PECC 위원회 및 호주국립대학 동아시아경제연구소(EABER)와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고, 그 결과로 나온 보고서(framework paper)를 가지고 오늘 전문가 분들과 함께 논의하기위해 오늘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게 되었음.

□ 유수프 와난디(Jusuf Wanandi) PECC 공동의장

- o 동아시아 관점에서 본 한국의 G20 정상회의 유치의 중요성
- G20은 전 세계 지도자들의 모임이 되었고, 여러 신흥국들의 참여로 그 중요성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음.
- 특히 한국이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됨으로써 세계 경제협력 논의에 신흥시장(emerging markets)의 역할을 반영하고 글로벌 불균형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한국이 주도하여 추진해야 함.
- 동아시아 지역 G20 국가뿐만 아니라 G20에 속하지 않는 동아시아 국가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2010년 한국 G20 정상회의에서의 의제 개발과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강구를 위해 협력해야 함.
- 오늘 토론이 향후 G20 프로세스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적, 더 나아가 세계적인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.

□ 피터 드리즈데일(Peter Drysdale) 국립호주대학교 경제학 명예교수

- o Framework paper에 대한 배경설명 및 소견
- G20은 세계 경제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으며, 이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게 되었고 역사적인 기회가 될 것임.

- 한국과 호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이미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있음.
- G20은 국제적인 협력 의지와 노력과 이행하는 도구로써, G20의 성공여부는 국제적인 공조 의지에 달려 있음.
- 아시아 국가들은 G20을 통해 무엇을 얻겠다는 입장뿐만 아니라 G20이 세계 경제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아젠다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기여하려는 자세가 필요함.
- 아시아 국가들이 내년 한국 정상회의에서 어떤 의제를 제시할 것인지, G20 프로세스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며, 한국이 어떻게 G20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아시아 국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보아야 함.

---

### 기조연설: “한국 G20의 과제와 전략적인 고찰”

#### 사공일 한국 G20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장

---

##### o 세계 경제의 권력 이동과 G20

- 세계 경제에 있어 힘의 균형에 변화가 생기면서 과연 G7이 세계를 운영하는 협의체로서 정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대두됨.
- G7을 G13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, 금융위기 발발 후 미국의 제안대로 마침내 G20 정상회의가 개최됨.
- 워싱턴포스트는 1차 워싱턴 정상회의 직후 ‘세계 권력의 이동을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’이라고 표현함.

##### o 한국이 2010년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게 된 배경과 의의

- 한국은 지난 3개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고, 유일하게 위원회를 구성하여 G20 프로세스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옴.
-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에서는 금융 규제개혁이나 감독과 같은 이슈를 강조해 온데 반해 한국은 무역관련 이슈를 포함, 균형 있는 의제를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중요한 성과를 냄.

- 이러한 한국의 노력과 기여 때문에 한국이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는데 반대가 없었고 일본과 중국도 한국 개최를 지지해 줌.
- 한국의 G20 정상회의 개최는 한국에게 뿐만 아니라 G20 프로세스의 제도화에도 매우 중요함.
- G20은 선진국, 신흥국, 개발도상국을 모두 포함하여 세계 모든 국가들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으며, OECD 회원국인 동시에 신흥국에 속하는 한국은 아시아지역과 신흥경제의 의견을 듣고 대변해야 함.

##### o G20의 과제

- 6월 캐나다 정상회의에서는 출구전략과 단기적인 경기순환조치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.
-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에서는 구조개혁 이슈, 경제위기후 관리,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 등에 대한 중장기 이슈가 다루어져야 할 것임.
- 한국은 성공적이고 신뢰할 만한 G20 프로세스 준비를 위해 국내 조직을 곧 개편하게 됨. 관련 정부부처 및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일련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.

---

## 토 론

---

### □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회장

##### o G20과 세계 체제 변화의 역사적 연관성

- G8에서 G20으로의 전환은 과거 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의 결말과 그 역사적 변화라는 차원에서 관련이 있다고 봄.
- G8의 실패는 과거 정치적, 경제적 관점에서 제국주의 시대의 종말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.
- 미국의 주도로 움직이던 세계는 이제 다극체제로 탈바꿈하고 있음.

##### o 정치적 관점에서 본 Framework paper에 대한 소견

- 세계 경제 속에서 아시아 경제의 새로운 역할을 찾고, 경제력을 정치력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.

- 제프리 삭스는 파이낸셜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G20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논의기구로서는 매우 전망이 밝지만 20개 회원국들이 각각 다른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를 해결한 이후의 정치적인 접근에서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음.
- 경제위기 하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어렵지만 일단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정치구조로 돌아온 후 문제 해결은 매우 복잡해짐. 이는 개별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적, 세계적 협력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미리 대응을 준비해야 함.

□ 김기환 서울파이낸셜포럼 회장

- o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학적 접근이 필요
- 한국이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즈음에는 위기대응 문제가 해결되고 중장기 구조개혁 이슈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를 바라지만,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불확실하기 때문에 면밀히 지켜보며 대응해야 함.
- o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국내 개혁 추진이 필요
- 한국의 신뢰할만한 리더십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금융 이슈에 있어서 한국 내부의 체계적인 개혁도 중요함.
- 이는 국내 정치상황으로 볼 때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성공적인 G20 개최를 위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음.

□ 박영철 고려대학교 교수

- o G20의 발전을 위한 동아시아의 역할
- 한국과 동아시아가 G20 프로세스 발전에 매우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믿으며, 그 역할을 분명히 정의하여 세계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.
- o 불균형 해소 관련 다음과 같은 이슈에 대한 연구가 필요
- 무역불균형을 야기하는 수출보조금과 수입관세
- 중국통화를 포함하여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통화 가치 저평가 문제

- 비교역제 부문의 시장 보호 현황
- 비자발적 저축 등 저축률이 높은 이유
- 경기 부양책 외에 추가적인 거시경제적 조치 가능 여부
- 금융 개혁 및 규제 문제와 세계 금융감독시스템의 개혁

□ 고든 드 브라우어(Gordon de Brouwer) 호주 수상 경제자문위원회 부장관

- o 2010년 한국 G20 정상회의의 의제
- 출구전략 논의는 6월 캐나다 회의에서 끝날 것으로 봄.
- 세계경제기구들, 즉 IMF과 World Bank 개혁에 관한 논의가 2010년 후반부에 다루어질 것임.
- 도하 무역 협상과 기후변화 코펜하겐 회의 관련 새로운 이슈도 논의되어야 할 것임.
- 개발 관련 이슈로 경제 인프라 구축, 제도적인 문제로 G20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문제도 중요함.
- 제도화와 정당성 확보를 위해 아시아내 G20 비회원국의 의견을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ASEAN, APEC, 아프리카국가연합 등 지역 그룹을 활용할 수 있음.

□ 사공일 한국 G20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장

- o 의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
- 세계 금융 구조 개혁과 글로벌 불균형 이슈 대응
- 주변국 및 세계 각국의 평가나 의견 수렴
- 환율 문제나 균형 이슈에 관련해서 중국과의 관계 정립 필요

## 세션 1: “거시 경제와 금융 이슈에 관한 G20 아젠다”

### □ 피터 드라이즈테일(Peter Drysdale) 국립호주대학교 경제학 명예교수

- 거시 경제와 금융 이슈는 각각 독립적인 의제가 아니라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아젠다로서, 개별적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대응해야 함.
- Framework paper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요하게 논의할 내용은 1) 거시 경제의 안정화, 2) 금융 리스크의 개선, 3) 구조 개혁과 불균형 해소, 4) 금융과 무역 분야의 국제기구 거버넌스 개혁 등 4가지 분야임.

### □ 박영철 고려대학교 교수

- 무역이슈
- G20의 성공과 지속 여부는 WTO 체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있음. 무역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면 G20은 세계 경제 회복과 안정에 기여할 수 없게 될 것임.
- 동아시아 지역 거시경제 및 금융 이슈
- 경상수지 흑자를 축적하고 있는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 한편 구조 개혁과 국내 수요 진작을 통한 불균형 해소에 진지한 노력을 보여줘야 함.
- 모든 국가에 맞는 금융 정책은 없음.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금융규제 이슈에 있어 메이지 금융기관이나 파생상품 시장이 작다는 특수성이 있음.

### ○ 중국 문제

- G20 프로세스에서 중국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듦. 중국의 정책을 비판하고 통화 질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아시아 국가들이 협력하여 중국이 G20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함.

### □ 김인철 성균관대학교 교수

### ○ G20 의제 중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3가지 분야

- 글로벌 불균형 이슈 관련, 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는 의문임. 과연 미국 국민이 소비를 줄일 것인지, 중국이 대미 수출을 급격히 줄일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이러한 불균형 해소 문제는 신중한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함.
- 출구 전략 논의 관련, 재정확대 정책은 동시에 이루어졌으나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점은 나라별로 다름. 환율의 변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음.
- 금융 이슈 관련,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있음. 단기 자본이동을 억제하기 위한 토빈세 도입 관련 가이드라인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, 역시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함.

### □ 박재하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

### ○ 금융 제도 강화와 환율 안정

- 환율시장 안정을 위한 안전망이 없다면 신흥경제의 외환보유고 축적은 계속될 것이고 보호주의를 초래할 수도 있음. 환율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이 G20에서 논의되어야 함.
- 금융시스템을 강화하고 법제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공조와 신흥국의 참여가 필요함.
- 아시아 금융위기 후 ASEAN+3,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등의 지역적 협력 노력을 재평가하고, 현재에는 어떠한 지역협력을 추구할 것인지가 'Asian Agenda'가 될 것임.

### □ 리처드 답스(Richard Dobbs) 맥킨지 앤 컴퍼니 디렉터

### ○ 장기적인 자본 형성이 필요

- 현재 장기 자금은 언제든지 단기화될 수 있고 환율 안정과 금융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음.
- 장기적 성장, 연금이나 인프라 등의 장기적인 투자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함.

□ **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**

- 한국에서 개최될 G20에서 내부적(within sectors) 및 국경간(cross-border) 두 가지 불균형을 어떻게 동시에 해결 할 것인가 하는 중기적인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.
- 위기 후 경제 잠재성장률이 감소할 것임. 생산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문제,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 및 금융시장 접근 문제도 논의되어야 함.

---

**세션 2: “구조 개혁 이슈에 관한 G20 아젠다”**

---

□ **피터 드리즈데일(Peter Drysdale) 국립호주대학교 경제학 명예교수**

- 구조개혁 문제는 이 Framework paper의 핵심이며, 한국 G20 회의에서 특히 중국의 문제에 대응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.
  - 현재 논의는 경상수지 균형에 치중되어 있지만 더 핵심적인 구조개혁 문제는 국내 불균형 시정과 국내경제 운용임.
  - 정치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구조개혁 이슈를 어떻게 정상회의의 헤드라인으로 가공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임.

□ **피터 페트리(Peter Petri) 미국 브랜디스대학교 교수**

- 아시아는 세계경제를 안정시키는 원천으로서, 경기부양 정책 이후 성장을 이끌 원동력이 필요.
  - 요소 시장, 서비스 시장 등 보다 광범위한 효율성 혁신과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함.
  - 인구구조 변화, 에너지 문제 등 장기적인 투자와 조정이 요구되는 새로운 문제들도 고려해야 함.
- 구조 개혁 문제 논의에 있어 국제적 공조가 중요

- 현재 불균형 규모는 조정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며, 연구결과 적절한 정책을 이행한다면 1-2년 안에 해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. 중국의 소비 지출이 4-5% 정도 증가하면 해소 가능하고 미국의 저축도 늘어나고 있음. 미국의 문제는 재정적자임.
- 국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어떻게 정치적 마찰을 피할 것인지, 어떤 수준의 국제협력이 가능한지,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함.

□ **슈지로 우라타(Shujiro Urata) 일본 와세다대학교 교수**

- WTO 문제가 중요하다는 박영철 교수의 의견에 동의
  - G20 성명서에 보면 보호주의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「Global Trade Alert」에 따르면 실제로 보호무역주의를 행하는 국가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음.
  - G20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보호적 무역조치를 멈추어야 함.
- Framework paper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G20에서 고려해 볼 이슈
  - 무역과 보호주의 문제, 소득불균형, 환경문제, 노동 및 부동산 시장 개혁, 보험 시장, 사회안전망 등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봄.
  - 비 회원국의 정보와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함. 시기적으로 ASEAN+3나 APEC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음.

□ **정태용 아시아개발은행 선임기후변화담당관**

- 기후 변화 이슈는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.
  - 진정한 문제는 기후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, 대응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될 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며, 이 때문에 현재 예방 차원의 수단 정도 밖의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음.
  - 기후 변화의 위험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인프라가 취약한 저개발 국가이며, 기후변화 방지 혹은 대응을 위한 인프라 투자는 매우 장기적인 과제임.
- 기후 변화 관련 국제적 거버넌스와 G20

- 현재 UN, 교토 레짐, MEF(Major Economic Forum) 등 기후 변화 관련 국제 포럼은 존재하며 추가적 기구는 필요하지 않다고 봄.
- G20에서는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 등 기후 변화 관련 대책을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. 한국의 개발 경험은 기후 변화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녹색 성장과 같은 아젠다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.
- 구체적인 예로서 탄소배출권, 탄소세 등 탄소배출에 가격을 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가속화할 것인가의 문제도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함.

□ 리처드 답스(Richard Dobbs) 맥킨지 앤 컴퍼니 디렉터

- 맥킨지 연구에 근거해서 구조개혁 관련 세 가지 이슈를 제기하겠음.
  - 생산성과 인구구조 문제: 인구성장이 정체에 접어든 현재 지난 10~20년 수준의 세계성장률을 지속하려면 자본과 노동 시장의 생산성을 높여야 함.
  - 외환보유고 문제: 미화가지 하락으로 외환보유국들은 손해를 볼 수 있음. 미국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이득이나 일자리 감소와 저축자의 손해가 발생함. 계속 미국통화로 외환보유고를 축적하고 미 통화 가치가 떨어질 경우 각 국은 손해를 감수해야 함. 유로나 엔화로 대체 준비통화를 만드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.
  - 불균형 문제: 중국의 소비가 낮은 이유는 사회안전망 부족, 소비 인프라 부족, 신용거래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, GDP의 일부만이 가계 소득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급격한 소비 증가는 쉽지 않을 것임. 불균형 해소에는 매우 복잡한 해결책이 요구됨.

□ 고든 드 브라우어(Gordon de Brouwer) 호주 수상 경제자문위원회 부장관

- 개발과 성장을 위해서는 교통, 학교 및 주택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이 필수
  - 예를 들어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처럼 도시의 인프라 건설은 이주노동자를 영주노동자로 전환하여 소비패턴을 바꾸는 효과가 있었음.
  - 정책적으로 국제 개발은행들이 인프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인프라 구축 계획과 자금 조달 능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임.

□ 박태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장

- 무역 관련 동아시아가 G20 프로세스에 기여할 방안
  - 금융위기 이전부터 국제무역시스템은 위기였음. 동아시아는 35-40여건의 양자간 FTA를 체결하였는데 시행상의 예외가 많고 이행기간이 김.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세계무역시스템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임.
  - G20이 신뢰성을 얻기 위해 도하 협정 타결을 위한 역할이 요구됨. 특히 산업과 은행 부문에 쏟아 부은 보조금 문제도 대응해야 할 중요한 이슈임.
  - 동아시아 국가는 모두 주요 무역국이기 때문에 세계무역시스템에 기여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임. G20 프로세스가 현재까지 금융분야에 집중해 왔으나 진정한 최상위 경제협의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역 이슈도 다루어야 함. G20 무역장관회의도 고려해 볼 수 있음.

□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

- 무역과 DDA 협상 관련 G20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.
  - 특히 standstill에 합의하고 DDA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에 합의 하였으며 런던 정상회의에서 2천5백억 달러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에 합의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함.
  - 보조금 관련, G20 국가들도 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이 사실이며, 분쟁해결 부분은 WTO 절차가 있기 때문에 G20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임.

---

**세션 3: “한국 G20와 그 이후, 동아시아의 역할”**

---

□ 유수프 와난디(Jusuf Wanandi) PECC 공동의장

- 동아시아 국가들이 G20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협력이 필요한 시점

- G20의 정당성 확보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논의한 이슈들을 G20에서 정기적인 토대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, 아시아 비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. ASEAN+6나 APEC과 같은 지역기구들을 활용하고 ASEAN 의장국이 G20에 옵서버로 참여하는 방안도 가능함.
- 정치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미디어의 역할도 중요함.
- 피츠버그 회의 이후 G8이나 G8+5가 아닌 G20이 중요해지면서 중국과 일본은 이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음. 중국과 일본간 관계 발전, 또 동아시아 국가간 긴밀한 관계와 유연한 의견 수렴이 필요함.
- 인도의 경우 경제적으로 뒤쳐져 있고 경제관계를 다루기 매우 힘든 국가임. 전략적으로는 이미 아시아로서 인정하고 있지만 경제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협력 가능한지는 회의적임.

□ 고든 드 브라우어(Gordon de Brouwer) 호주 수상 경제자문위원회 부장관

- o G20내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위험부담도 있음.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동 대응이 G20의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할 것임.

□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

- o G20을 보완할 아시아 프로세스
  - 아시아의 역할을 정상회의 전과 후로 나누어 볼 때, 정상회의 전에는 아시아 국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고, 회의 후에는 구체적인 이행작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임.
  - 이를 위해 아시아에 이미 존재하는 지역 기구들을 보다 강화하여 활용할 수 있음.

□ 박원암 홍익대학교 경제학 교수

- o 세계경제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1년 후의 의제를 논의한다는 것이 다소 이른감이 있음. 내년도 의제는 세계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해야 할 것임.

□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

- o G20은 새로운 제도로써 현재까지 경제·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적(reactive) 역할을 해 왔으나, 위기를 어느 정도 벗어나면서 최상위 국제 경제협력체로 인식됨.
  - 우리는 위기이후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하며 이것이 큰 과제가 될 것임.
  -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적극적(proactive)이고 유연한 자세가 필요함. 이는 많은 이슈들 중에 어떤 것을 다룰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더 큰 과제임.
- o 새로운 의제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
  - 지속가능하고 균형적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가
  - 국제적인 공조가 가능한가
  - G20 논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이행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가
- o 불균형 해소 문제 관련, 중미 양자간의 문제로 보기 보다는 다자간 문제로 접근하여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성장 프레임워크의 한 이슈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함.

□ 양수길 KOPEC 회장

- o 우리는 G20 관련 Track2 프로세스를 구성하고자 했고 특히 내년도 한국 G20 정상회의를 위한 논의를 위해 이 프로세스를 시작했음.
  - Framework paper를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더 많은 동아시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갖겠음.

/끝/